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영식* , 김주영**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전공
e-mail:wndud5653@naver.com

Effect of happiness and self-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self-resilience of young children

Young-Sik Kang*, Joo-Yeong Ki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D시 소재의 유아교사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아교사의 행복감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을 알 수 있었다.

Key Words : 유아교사,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 자아탄력성

1. 서론

유아교사는 유아들에게 성장과 발달 촉진하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유아교사는 하루일과를 통해 유아들에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주고 받으며 하루의 만족감과 행복을 경험한다. 이때 교사가 경험하는 만족이나 행복감은 교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유아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아교사는 유아들에게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는 인적·물리적 환경을 통해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내용과 범위, 교수방법, 교재와 교구의 선정 등은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유아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교사-유아 긍정적 상호작용은 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어 유아들에게 자아탄력성을 촉진하며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기여한다. 교육의 핵심적인 활동은 교사가 보유한 지식, 기술, 자원을 유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유아교사는 교육의 성과와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

인이 된다[1]

김도란과 김정원(2008)은 주변 성인의 행복감은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모님이나 가족, 교사 등 유아와 함께 지내는 주변 성인들이 감지하는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에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유아교육현장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교육기관 내에서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영유아들과 보내며 상호작용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부딪치는 유아교사는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뿐만 아니라 유아와의 관계에서 마주하며 인식하는 행복감 역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유아의 하루 생활 중에 많은 시간을 지내는 곳은 유아교육기관이고, 유아교사가 중요한 그 교육의 중심에 있으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3].

교사의 셀프리더십은 우수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노력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리더십을 이끌어내고, 자율통제를 통해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조직에 몰입하도록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 자기 자신에게 발휘하는 리더십과 바른 행동을 시도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행동과 동기를 포함한다[4].

빠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유아들은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유아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주변 환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우울에도 취약하지 않는 성격적 특징이 있으며 긍정적 정서를 보이며 불안해하지 않는다[2]. 이러한 결과들은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계발하고 활용하면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개인적 요인을 함축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아직은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통해 유아 자아탄력성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증진하여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미래에 보다 긍정적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 소재의 유아교사 104명이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04)

변인		n	%
연령	20세~25세	13	12.5
	26세~30세	29	27.9
	31세~35세	30	28.8
	36세~40세	10	9.6
	41세 이상	22	21.2
교사	전문대학(3년제) 졸업	23	22.1
	대학교(4년제) 졸업	65	62.5
	대학원 재학 이상 및 졸업	16	15.4
경력	1년 미만	5	4.8
	1~4년 미만	36	34.6
	4~7년 미만	23	22.1
	7~10년 미만	20	19.2
	10년 이상	20	19.2
기관	국공립 유치원	14	13.5
	사립 유치원	90	86.5

연령	만 3세	21	20.2
	만 4세	43	41.3
	만 5세	33	31.7
	혼합연령	7	6.7

2.2 연구도구

2.2.1. 유아교사의 행복감

유아교사 행복감 측정을 위해 최요원(2002)이 번안하여 사용한 Hills와 Argyle(2002)의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를 광희경(2011)이 측정된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본 검사 도구는 Likert 5점 척도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 문항은 역척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다.

2.2.2.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Houghton과 Neck(2002)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를 기초로 서유희(2012)가 유치원 교사에 맞게 수정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김수용, 2018). 본 검사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변인에는 행동 중심적 전 14문항으로 신뢰도(Cronbach's α) .84, 자연적 보상 전략 4문항으로 신뢰도 .72,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 10문항으로 신뢰도 .92이며, 전체적인 신뢰도는 .94이다.

2.2.3.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LeBuffe와 Naglieri(1999)가 만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전은희(2008), 구희정(2010), 국소영(2013) 등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유아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변인에는 주도성 12문항으로 신뢰도(Cronbach's α)는 .93, 자기통제력 7문항으로 신뢰도 .86, 애착 8문항으로 신뢰도 .88이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신뢰도는 .96이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24년 9월 29일부터 2024년 10월 5일까지 총 1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D시에 위치한 유치원에 다니는 교사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방법으로는 직접 연구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온라인 설문 주소를 안내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응답지 104부로 모두 회수되었고, 104부 모두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2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계

수, 기술통계, Pearson 적률상관계수, 다중회기분석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2]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의 자아탄력성 평균과 표준편차 (N=104)

변인	집수범위 (최저~최고)		M	SD	왜도 첨도		
행복감	2.45	4.97	3.84	.56	-0.16	-0.85	
셀프 리더십	행동 중심적 전략	2.93	5.00	4.04	.47	0.02	-0.34
	자연적 보상 전략	2.25	5.00	4.00	.59	-0.36	0.59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	2.10	5.00	4.05	.60	-0.35	0.38
	전체	2.82	5.00	4.04	.49	-0.10	-0.25
자아 탄력성	주도성	2.67	5.00	4.15	.59	-0.29	-0.83
	자기통제력	2.29	5.00	4.04	.59	-0.29	-0.35
	애착	2.88	5.00	4.36	.52	-0.34	-0.76
	전체	3.00	5.00	4.18	.54	-0.20	-1.03

[표 2]와 같이 유아교사의 행복감의 평균은 3.84로($SD=.56$)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 수준은 전체 평균이 4.04($SD=.49$)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의 평균이($M=4.05, SD=.60$)이 가장 높았고, ‘자연적 보상 전략’($M=4.00, SD=.59$)이 가장 낮았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4.18($SD=.54$)로 확인되었고, 하위변인 중 ‘애착’($M=4.36, SD=.52$)이 가장 높았고, ‘자기통제력’($M=4.04, SD=.59$)이 가장 낮았다.

3.2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표 3]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N=104)

변인	행복감 전체평균	셀프리더십			
		전체	행동 중심적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
자아탄력성 전체 평균	.70***	.77**	.64***	.71***	.77***
주도성 평균	.69***	.73***	.60***	.69***	.73***
자기통제력 평균	.62***	.74***	.61***	.70***	.75***
애착 평균	.67***	.73***	.62***	.65***	.73***

*** $p<.001$.

[표 3]과 같이 유아교사의 행복감($r=.70, p<.001$)과 셀프리더십($r=.77, p<.001$)은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

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인 행동 중심적은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유아의 자아탄력성 전체 하위변인들과($r=.60\sim.64$)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연적 보상전략은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유아의 자아탄력성 전체 하위변인들과($r=.65\sim.71$)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은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유아의 자아탄력성 전체 하위변인들과($r=.73\sim.77$)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인 행동 중심적($r=.64, p<.001$), 자연적 보상전략($r=.71, p<.001$),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r=.77,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3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표 4]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β	t	p
	B	SE			
(상수)	0.43	0.27		1.61	0.11
1 행복감	0.33	0.07	0.34	4.55***	.000
셀프리더십	0.61	0.08	0.55	7.22***	.000
통계량	$R=.814, R^2=.662, \text{조정된 } R^2=.655$				
	$F=98.90, p<.001, \text{Durbin-Watson}=1.57$				

*** $p<.001$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인 [표 4]을 살펴보면 행복감($\beta=.34, p<.001$)과 셀프리더십($\beta=.55, p<.001$)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약 66.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증진하여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미래에 보다 긍정적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논의 후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상관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유아와 함께 지내는 주변 성인들이 감지하는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에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김도란과 김정원, 2008)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유아교사가 행복감을 느낄 때 교사-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의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상관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하위변인 중에서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자신의 사고에 대한 의도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이끌어 가는 과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nz & Sims, 1991).

결론적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어 유아들에게 자아탄력성을 촉진하며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기여한다는 (채정연, 2020)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면의 교사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충청지역 D시의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의 자아탄력성 모두 설문지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다소 제한되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차후 연구에는 반응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채정연. “교직경력에 따른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조직공정성 인식이 교직원신에 미치는 영향” 대

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 2020.

[2] 김민경.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행복감이 유아자아탄력성과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3] 이은주. “유아교사의 교사행복감과 교수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4] 이혜민.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자아탄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5] 정정희.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수실제의 관계” 동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